

완도군 가족센터, 다양한 세대·가족 프로그램 운영 활발 복합 가족 복지 공간으로 자리매김

지난 6월 26일 개관한 완도군 가족센터가 다양한 세대와 가족 유형을 아우르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완도군 가족센터는 지상 4층 규모의 복합 가족 복지 공간으로 ▲다목적 소통 공간, 커뮤니티실 ▲공동 육아 나눔터와 다문화 자녀 이중 언어 교실 및 한국어 교실 ▲상담실 ▲교육실, 요리 교실, 동아리방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결혼이민자, 청소년,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동체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지난달에는 결혼이민자와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 특산물 '전복·뽕 활용 수제 소풍 도시락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문화적 다양성을 음식이라는 친근한 매개체로 엮어 큰 호응을 얻었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물론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 육아 나눔터'는 아이를 함께 돌보며 맞벌이, 한부모 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핵심 공간이 됐다.

아이들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창의력을 키



우고,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과 정보 등을 공유하며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를 얻고 있다.

다문화 가족의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설계 지원, 자녀 코칭, 아버지와 자녀를 위한 신체 놀이 프로그램 등도 운영 중이다.

완도군 가족센터는 앞으로 다문화가정 지원 강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 기

반 구축 등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가족센터는 지역민 모두가 가족처럼 어울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면서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가족 친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진도군, '진도(농촌)에서 살아보기' 하반기 참여자 모집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관외 거주 도시민을 대상으로 8월 20일까지 모집

진도군은 2025년 하반기 '진도(농촌)에서 살아보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길은푸르미마을은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6가구 8명, 남도전원한옥마을은 8월 8일부터 8월 18일까지 6가구 9명을 모집하며, 희망자는 '그린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진도에서 살아보기'에 16가구 총 20명이 참가해 2~3개월 동안 마을에 거주하면서 일자리 체험, 지역 탐방, 주민과의 교류, 영농영어

체험, 정원과 화훼 가꾸기, 민속문화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참가자 중 5명은 진도에 정착했다.

진도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농어촌 생활을 다양하게 경험하며, 귀농어귀촌을 내실 있게 준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보배섬 진도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초기 정착을 위해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이사비용 지원, 영농어 자재 지원 등 보조사업과 귀농어 창업, 주택구입 용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귀농어귀촌 희망자가 정주 기반 탐색을 할 때 필요한 귀농인의 집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9월에는 전라남도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귀농어귀촌 희망자가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2년 동안 살아볼 수 있는 주택 4개소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진도/오재영 기자

순천시, 산업단지 근로자 폭염재난예방에 적극 나선다

산단 근로자 폭염 대응 행동요령 집중 홍보·안전관리 실태 점검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산업현장 근로자의 열질환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폭염재난 예방을 8월부터 울촌산단을 시작으로 해룡일반산단, 순천일반산단, 주암농공단지까지 매주 수요 일마다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캠페인에는 순천시, 산단협의회, 입주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여해 출근길 및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대응 5대 수

칙(물·그늘·휴식·보냉·응급조치) 준수와 충분한 수분 섭취, 2시간 작업 시 20분 휴식 등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한다.

특히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작업장 내 무더위 쉼터 운영 실태 점검과 함께 작업 시간 조정 여부 등 현장 안전관리 실태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산업단지 내 폭염재난 예방을 위해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확보, 산업단지 내 그늘막 12개소 설치와 근로자

보냉용품(쿨스카프) 1,500점, 얼음생수 3,000개를 배부하는 등 실질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용자, 근로자의 합리적 협력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울촌산단사거리,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 건설현장에서 약 1,000여 명의 근로자들에게 쿨스카프, 냉수, 안전수칙 팸플릿을 배부하여 폭염재난 예방공동체 실천문화정착을 위한 첫 번째 캠페인을 실시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카메라 뉴스



무안군, '청렴직원 릴레이 시즌2' 다시 달린다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청렴릴레이 - 가장 청렴할 것 같은 직원을 찾아라' 캠페인의 상반기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하반기 릴레이를 8월부터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이 캠페인은 매주 수요일에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등 고위공직자가 각 부서를 직접 방문해 직원들이 뽑은 청렴 직원에게 '청렴소화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반기에만 총 39개 부서를 순회해 청렴 문화 확산의 기반을 다졌다.

하반기 릴레이 역시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청렴의 불을 지피기 위해 추진되며, 직원들 스스로 참여하는 청렴 활동으로 조직 내 공감과 자율적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화순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비 촉진 캠페인 실시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비 촉진과 고물가·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8월을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비 촉진의 달'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8일 화순군 지역경제과 직원 15명은 화순 고인돌 전통시장 방문,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직접 장을 보며 소비 촉진에 힘을 보탰다.

또한 주민들이 한층 쉽게 소비쿠폰 사용처를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쿠폰 사용처를 알리는 안내 스티커를 시장 상인들에게 배부하였다.

화순군은 이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외에도 관내 음식점점소를 이용한 외식 독려 등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화순/김종환 기자



영광군, 무안군 수해 현장에 자원봉사자 지원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8월 3일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무안군 수해 복구 현장에 자원봉사자를 긴급하게 지원하여 복구 작업을 도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무안읍 소재 지하상가가 완전히 침수되어 복구가 시급한 상황이었으나 복구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긴급하게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지원하였다.

복구 현장에는 영광군 공무원과 영광군새마을회(회장 정진기) 소속 영광읍·군남면·염산면위원회, 영광군여성자원봉사대(회장 나은주), 대한어머니회 영광군지부(지회장 강윤례) 등에서 26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군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현장이 신속히 복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